

카카오 데이터센터

대한민국 IT기업인 (주)카카오에서 설립하는 데이터 센터

- 2020년 협약에 따라 한양대 ERICA캠퍼스에 '카카오 데이터센터'가 설립된다.

□

목차

- [1 데이터센터](#)
 - [1.1 협약식](#)
 - [1.2 일정 계획](#)
 - [1.3 설립 효과](#)
 - [1.4 시설 규모](#)
 - [1.5 착공식](#)
- [2 각주](#)

데이터센터

카카오는 4000억원을 투입해 한양대 ERICA캠퍼스 내 [혁신파크](#) 도시첨단산업단지 1만8383㎡에 2023년 준공 목표로 데이터센터와 산학협력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. 건설에는 삼우씨엠건축사무소가 수주했다.^[1]

데이터센터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운영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, 서버·네트워크·스토리지·네트워크 기기 등을 제공하는 통합 관리 시설이다.^[2] 자체 데이터센터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.

협약식

2020년 9월 7일 경기도, 안산시, 한양대, (주)카카오가 함께 ‘카카오 데이터센터 및 산학협력시설 유치 기본협약’을 체결했다.



카카오 데이터센터 유치 협약식 사진. (왼쪽부터)윤화섭 안산시장, 이재명 경기도지사, 여민수 (주)카카오 공동대표, 김우승 한양대 총장. (사진출처 : 경기도청 보도자료 2020.09.07)

일정 계획

- 2020년 : 건축설계 - 건축 인허가 (예정)
- 2021년 : 토지 임대계약 체결 - 공사 착수 (예정)
- 2023.09 준공
- 2024.01 가동 시

설립 효과

- 경기도 및 안산시 :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
 - 행정 지원 : 안산시 산업지원본부장 단장 전담 TF팀및 도시계획·건축·수도·도로·상하수도 등 8개과 12개 팀 참여^[3]
 - 지역 시너지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한 [안산사이언스밸리\(ASV\)](#) 인근 위치, 경기도 정보통신산업 발전 기대
 - 안산시 효과 분석 : 생산유발 8036억원, 부가가치 유발 3715억원, 일자리 창출 2700명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 예상
- 한양대 : 캠퍼스 부지 제공, 학생 대상 현장 교육 진행 계획
 - 소규모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혁신성장 거점으로 도약

시설 규모

- 연면적 4만7,378㎡의 초대형 규모
- 초대형 하이퍼스케일 규모 : 전산동 건물 안에 총 12만대의 서버 보관 가능, 365일 24시간 가동
 - 소프트웨어를 통한 분산처리 방식을 통해 고객사 요청에 기존보다 유동적으로 대응
 - 클라우드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에 유리^[4]
- 저장 가능 데이터양 : 6EB(엑사바이트·1엑사바이트는 약 10억 기가바이트)에 이를 예정

- 데이터센터 구성 : 서버, 네트워크, 스토리지, 네트워크 기기 등을 통합 관리

착공식

- 2021년 12월 17일 안산시, 한양대, (주)카카오가 함께 '카카오 데이터센터 및 산학협력시설 착공식'을 개최했다.^[5]



카카오 데이터센터 및 산학협력시설 착공식 ©안산시

각주

1. [↑](#) [출처] <건설경제> 2020.09.08 삼우씨엠, 4000억 규모 카카오 첫 데이터센터 수주
2. [↑](#) [출처] <한겨레> 2020.09.08 디지털 투자 가속화...카카오도 자체 데이터센터 짓는다
3. [↑](#) [출처] <인천일보> 2020.09.08 “안산에 데이터센터 유치는 시민 덕분”
4. [↑](#) [출처] <이데일리> 2020.09.07 카카오, 안산에 첫번째 데이터센터 짓는다..클라우드 시장도 진출
5. [↑](#) <뉴스H> 2021.12.29 [ERICA, 카카오 데이터 센터 및 산학협력시설 착공식 개최](#)